**대림 제 3주일(2017년 12월 17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이제 1주일 남았네요. 곧 성탄절입니다. 바쁩니다.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마치 인생의 어떤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좀 덜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정말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성당들, 그리고 미국 가정들, 이 사회 전체가 정말 분주합니다.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해야 할 일들 목록을 적어놓고 하나하나 체크하기도 합니다.

 쇼핑도 가야죠, 이곳저곳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야죠, 집안 여기저기 장식도 해야죠, 요리도 해야 합니다. 혹은 각종 크리스마스 파티도 계획하고, 아니면 여행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잖게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도 명절때면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큰 집안의 며느리들이 그렇죠. 어쨌든, 큰 이벤트일수록 준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바로 ‘희망’과 ‘기쁨’입니다. 오늘 대림초의 세번째 초, 핑크색 초를 밝혔습니다. 보라색보다 조금 더 환하고 밝은 색이죠. 기쁨과 희망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보라색보다는 조금 더 밝아졌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하얀색은 아직 아닙니다. 하얀색이 완전한 환희와 기쁨을 상징한다면, 이 핑크색은 아직 완전한 기쁨은 아닙니다. 그래도 보라색보다는 조금도 기쁨과 희망이 많아졌습니다. 어두운 보라에서 시작해서 핑크색으로 점점 더 밝아지고 있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서 어렴풋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오랫동안, 무지 오랜 세월 동안을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 나라도 빼앗기고, 고향을 떠나 유배지에서 생활합니다.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절을 떠올리면 상상이 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믿고 버티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서서히 어둠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희망이 넘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구세주가 세상에 오십니다.

 그래서 대림 세번째 주일을 라틴어로 ‘Gaudete’ Sunday라고 합니다. ‘Rejoice’ Sunday라는 뜻입니다. ‘기쁨의 주일,’ ‘환희의 주일’이죠. 이제 곧 구세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실 것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도 바로 ‘기쁨’과 ‘희망’입니다.

 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사야 예언자, 사도 바오로, 그리고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 보다 나은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가 외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 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패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로움의 겉옷을 둘려 주셨기 때문이다.” 엄청난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어서, 시편 화답송에서 시편 저자도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계속해서, 2독서 사도 바오로가 또 말합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하고,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뭔가 잘 안되는 겁니다. 기도생활이 잘 안되면 기쁨이 없습니다. 반면에, 기도생활이 잘되면 상황에 상관없이 누가 뭐래도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복음에서도 또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기쁨에 넘쳐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하느님 나라가 곧 온다는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오시는 주님을 위해서 길을 곧게 내어라!”

 이사야 예언자와 바오로 사도, 그리고 세례자 요한... 그렇게 평탄하고 쉬운 인생을 산 사람들이 아니었지요. 주님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지만, 박해도 많이 받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따돌림도 받고, 온갖 고생 지긋지긋하게 끝도 없이 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정말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상황이랑 상관없이 말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늘 말하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십시오.” 바로 ‘기쁨의 영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가톨릭 영성 중에 하나입니다.

 가톨릭 영성 중에 이 ‘기쁨의 영성’과 함께 아주 중요한 영성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바보 영성’입니다.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 기준으로 정말 바보같이 사셨습니다. 하느님 아들로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리고 많은 기적들을 실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고 죽습니다. “잘 났으면 자기 자신이나 살려 보시지?”하는 소리와 함께 손가락질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바보처럼... 한 마디 큰소리도 안치고... 그런 분을 우리는 ‘주님, 주님’ 그럽니다.

 내가 부르는 주님이 ‘큰 바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작은 바보’처럼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 성당 바보 보기가 힘들어요. 어찌 그렇게 하나같이 예수님보다 다 똑똑한 사람들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고집도 장난 아닙니다. 감히 신부는 상대도 안됩니다. 하느님도 못 꺾습니다.

 바보들이 모여 있는 성당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칩니다. 파가 없어요. 똑똑한 사람만 많은 성당은 갈라지고 싸우고 나중에 망합니다. 다 잘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 똑똑한 것 눈 뜨고 보기 힘들죠. 남들 잘난척 하는 거 감히 용서가 안됩니다. 내가 더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영성은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로 멍청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 아니죠? 정말로 아이큐가 떨어지고 등신이라 저렇게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바보가 되라는 겁니다. 큰 바보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작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혼잣말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나는 바보야, 수환아’였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 떠서 스스로 거울 보면서, ‘야, 오늘 바보처럼 한 번 살아보자’ 하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어떠세요. “똑똑한 척하지 말고 바보처럼 살아야 해!” 김수환 추기경님,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셨으면 아침마다 세상 떠나실 때까지 눈을 뜨면 ‘나는 바보다’ 하면서 사셨겠어요?

  그래도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고 성령이 함께 있고, 가슴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언제나 삶에 기쁨이 넘치고 평화롭고 행복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쁨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성녀 마더 데레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가면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서, 그분이 남들을 도운 것처럼 남들을 도우면서,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내어 놓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남을 위해서 내어 놓으면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참된 기쁨입니다.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희생하고,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할 때, 그리고 그분처럼 겸손하고 가득한 사랑의 마음으로 살 때 참된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이번 주, 벌써 대림 3주입니다. 나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봅니다. ‘참된 행복과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을 준비가 되어있는지’ 말입니다.

 대림 3주, ‘기쁨의 주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거의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내 삶의 부족함이 무엇이든 간에, 내 잘못과 허물이 무엇이든 간에,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십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 곁에, 우리 삶 안에 오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랍고 기쁜 소식입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대림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이번 성탄부터는 보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늘 행복과 사랑과, 평화와 나눔이 가득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구세주께서 내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알게 될 것입니다!